

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전남지사【1】열린우리당 서범석

힘 있는 '여당 도백'이 낙후 전남 살린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유는, 왜 자신이 전남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인생을 경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처럼 지워지는 집이 있다. 저에게 도지사라는 직책은 '내가 받았던 어떤 것을 갚는 일'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비쳐졌다.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현재 전남 유권자들의 열린우리당 지지도로는 민주당 후보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으로 선거전에 임할 생각인지. 필승 카드는 있는가.

▲이번 선거는 부패한 구태정치의 마지막 청소이자, 지방정치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기회이다. 전남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이번 5·31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선거에 임한다면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감정 타파와 정치문화 개혁 등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고 지금도 유효하다. 정당민주화에 실패한 한나라당이 그것을 해낼 수 없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필승 카드란 바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으로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라고 본다.

-민선 3기 전남도정을 평가한다면.
▲수많은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지난 40년간 인구의 42%가 줄었다. 매년 지역내 자산 2조7천억원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박준영 지사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

열린우리당은 지난 14일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지사 후보로 서범석 전 교육부 차관을 확정했다. 서 전 차관은 경선 참여 발표 후 불과 5일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뒤 목포 현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인준까지 받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일보는 서 후보를 시작으로 각 당 시·도지사 후보 확정자의 인터뷰를 차례로 실는다.



농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복안은.

▲농민들을 겨냥한 표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싶지 않다. 농업국가로 성공한 뉴질랜드의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은 중앙 정부에서 나와야 한다.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농기계 등에 민간자본투자유치(BTL) 제도를 도입해볼까 한다. 수천 만원에 달하는 값비싼 농기계를 도가 구입해서 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에게 제공하고 도는 농기계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의 문제는 또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도시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 수준높은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은 호남민의 숙원이다. 최근 정동영 의장은 광주역과 정읍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고속철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작공 시기

도 명확치 않은데 어떻게 조기 완공을 이끌어낼 것인가.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적 논리뿐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완공되고 나니까 경기·충청지역 사람들이 세발나차 등 먹거리와 관광을 위해서 찾아와 서부권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도 같은 논리이다. 중앙 정부와 청와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다. 이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간중간은 정치권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해결방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의 시 지역은 원(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격차가 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개념을 도입하겠다. 뉴 어바니즘의 주요 특징은 대중교통중심개발을 강조한다. 자가용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고 공공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각자 집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600m)내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교는 아동들이 걸어서 도달하는 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패턴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다.

-전남도내에서도 지역간, 시군간 불균형 발전이 이뤄져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이 적지 않다. 특히 중남부권 발전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기계 등 '민자유치제' 도입
관광자원 활용 인구유입 추진

▲장흥·강진 등 중남부권은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훼손하기 보다는 친환경 실버타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겠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국정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의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양극화는 크게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극화 해결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지만 우선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수익을 내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해줄 수 있다.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평생학습체제인 '전남사이버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 서범석은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검증된 후보이다. 교육부 재직시절에 지방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차관 임명시에도 2~3개월간 임정한 검증 받았다. 'CEO형 행정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도민이 찾는 '여당의 힘 있는 도지사'가 바로 서범석이다. 도지사가 되면 직무실에서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 전남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로, 청와대로, 해외로 발로 뛰겠다. 필요하면, 애걸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니름기자 mjna@kwangju.co.kr

걸어온 길

'국민학교' 명칭 '초등학교'로 바꿔

1951년 광양지역 유복한 농가의 2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친을 여의고 진상중을 다니다 광주 북중으로 전학, 광주교에 진학했다. 선교사가 되고자 의대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3수만에 서울대 사대에 입학했다. 대학 1~2학년때는 유신 반대 및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원 1학년때 제1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향인 광양에서 수습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전남대 등에서 근무하다 1989년 서기관으로 승진, 순천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시절에는 새 학술진흥정책을 수립, 연구비 관리의 선진화를 꾀했다. 지방교육기획과장 재직시에는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서울대 사무국장을 거쳐 1999년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교육인적자원부 설립, 지방교육재정 확보,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으로서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학 운영의 부조리 근절 등에 힘썼다. 현재는 홍익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좌우명은 권리사의(見利思義). 부인 양우영씨(49)와 사이에 1남1녀.

공약

서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자신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SBS 플랜'이라고 명명했다. S는 복지와 경제가 강한 전남 실현(Strong), B는 인재양성으로 교육에 강한 전남 실현(Build up), S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청정환경보존과 관광전남 실현(Sight-seeing)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그는 전남의 고른 발전을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뉜다.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는 '첨단물류권역', 목포와 무안, 영암, 해남은 '해양레포츠권역', 나주와 화순, 영광, 함평은 '고대역사권역', 신안과 완도, 진도, 강진, 장흥 등은 '다도해권역', 담양·곡성·장성군은 '생태문화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을 2개 핵심권역과 3개 특화권역으로 나눠 발전의 해력이 고루 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외소득 발굴, 교육·의료 등 복지기반 확충에 힘쓰고 소비자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제2 남도고속건립과 평생학습 기관인 전남사이버 아카데미 설립, 권역별 원어인 타운 설치, 관·산·학 클러스터 체제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 후보는 "인구유출 등 현안이 레드오션이라면 청정 해안선과 갯벌, 1천965개의 섬 등은 블루오션이다. 이 둘의 장점을 취합한 '퍼플오션(Purple Ocean)'전략으로 전남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정책 공약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Dangdanghan' (당당한) featuring a woman in a pink jacket. Text includes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and '김정현 행복출생 대표'.

Advertisement for 'Simons' (시몬스) mattresses. Text includes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and '시몬스침대'.